

상록탑

## 미투 운동 한 달... 성범죄에 더욱 민감한 사회 되길

최근 '미투(#MeToo) 운동'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대학가를 비롯한 출판계, 연예계, 언론계 등 수많은 곳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나는 미투 운동에 대한 일부 반응을 보며 의아함을 느꼈다.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 가해자의 편을 들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가해자가 해명이라며 내놓은 연에감정을 논하거나, 무고죄의 형량을 늘려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한다.

분명히 피해자들은 가해자들로부터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용기를 냈다. 한국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난 후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글들은 사회 내 곳곳에 성범죄가 만연해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응원해주는커녕 그 글의 진위 여부부터 따지려 드는 사람들에게는 당혹감만 들 뿐이다.

이러한 경향을 바탕으로 탄생한 단어가 하나 있다. '꽃뱀'. 성범죄 가해자를 지칭하는 단어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지만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특히 그들의 성별이 여성일 때 그들은 흔히 꽃뱀으로 몰려 그들의 결백을 끊임없이 검열받는다. 사람들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공감하기에 앞서



김수연  
사건미디어부 부장

“ 지나친 피해자 검열로 발생하는 2차 가해 막아야 ”

“ 과연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 라는 질문을 던지고 피해자가 얼굴과 실명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 과정은 고스란히 '2차 가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힌다. 성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이런 터무니없는 시선을 너무 오래, 당연하게 받아왔다. 성범죄 이슈에는 항상 “왜 옷을 그렇게 입었느냐”, “왜 순순히 따라갔느냐”라는 질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사건 이후 가해자로

다 피해자의 이름이 오래 남기 일쑤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금, 이러한 시선은 근절되어야 한다. 성범죄의 원인은 그 무엇보다도 가해자의 행위이므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현재 사회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미투 운동이 진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드러난 가해자들은 두 손에 꼽기 힘들 만큼 무수했고 충격적이었다. 저명한 인사들의 성범죄 이력들이 앞다투어 폭로되고 있고, 지금도 여단가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성범죄자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내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이 운동을 통해 성범죄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해자의 대부분인 남성들이 미투 운동을 보고 자신들의 과거 행동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는 점 또한 의의를 지닌다. 성범죄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만큼 미투 운동이 단순 연예계 위주의 가십이 아닌 우리 모두가 사회 내 성폭력·성희롱에 대해 보다 예민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학생 칼럼

## 그토록 가지고 싶은 순간들

3학년이다. 2년 전 이맘때의 고민은 '어떤 동아리에 들어갈까'였다. 지난 2년간의 대학 생활 중 8할이 동아리 활동이었다고 자부할 정도로, 고민 끝에 들어간 2개의 동아리에서 나는 꽤 열심히 활동했다. 4년 혹은 그 이상의 대학 생활 동안 타인에게 '나'라는 사람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시대에 살면서 4학기 내내 날이면 날마다 공을 찼으며, 4년의 방학 중 3번을 학교에 가 동아리 공연을 준비하며 보냈다.

그과정에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청춘 드라마처럼 우정과 사랑이 꽃처럼 흐르는 평생 함께 갈 친구들도, 희생과 헌신, 책임과 배려, 그리고 'One Team'이라는 협동심도 아니었다. 최선을 다해도 마음만큼 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고, 즐거워지자고 하는 동아리 활동의 '모든' 순간이 마냥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히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나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다. 하나에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지내온 시간 속에서 후회 없이 달려온 후 내 손에서 떠나보낸 결과에 대해서는 미련을 갖지 않는 법을 배웠



황혜정  
교공·16

“ 열정이 쌓이면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법 ”

다. 동아리 활동을 하며 행복했던 순간만큼 힘들고 후회가 찾아오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런 언덕들을 혼자 힘으로, 또 함께 힘을 합쳐 넘어 오면 어느새 꽤 많은 언덕을 넘어와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 순간순간 속에서 알게 모르게 내 안에는 '할 수 있음'이라는 작은 힘이 하나씩 쌓여 점점 커져갔다.

이 힘은 '타인'에게 나를 증명하기 위한

무기들을 만들기에 앞서, 인생에 어떤 순간이 와도 '나'라는 사람 자체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나만의 무기이자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하여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에 지지 않게 되는 어느 날, 이는 언젠간 나를 지탱해 줄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동아리에서의 경험은 내 인생에서 그 누구도 쉽게 경험하지 못할 나만의 소중한 자산이다.

3월이다. 캠퍼스는 설레는 발걸음으로 가득한 새내기들이 가득하다. 새 가방, 새 신발, 새 코트를 휘날리며 이리저리 강의실을 찾아 뛰어다니는 그들을 보고 있자면 2년 전의 내가 떠올라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입학 후, 무엇을 하든(그것이 토익 공부일지라도) 임시를 위해 잠시 접어 두었던 자신의 열정을 마음껏 펼쳐보길 바란다.

본교 사범대학 축구동아리 '축구교과' 그리고 중앙동아리 클래식 기타 '에올피아'라는 공간 속에서 오며 가며 만났던 모든 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며, 18학번 새내기의 입학울 진심으로 축하한다.

여론광장

## 나의 엄마도 두려웠다

“그렇게 생각하려 들지 마”, “너가 잘 하면 되지. 능력으로 이겨야 해.”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차오를수록 엄마와의 대화는 내가 넘어야 할 산처럼 느껴졌다. 엄마는 모르는 걸까, 엄마는 딸이 이 사회가 변해야만 더욱 더 큰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걸까. 엄마와 대화를 하며 참 많은 시간과 감정과 눈물을 소비해야만 했다.

엄마도 회사를 다녔었다. 언니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도 한 회사의 구성원이었고, 더 나아가 이 나라의 경제활동의 주체였다. 그도 회사생활에서 참 많은 고통을 받았다. 엉덩이 혹은 허벅지를 쓸고 지나가는 상사, 브래지어 끈을 당겼다가 놓는 장난을 하는 남자원, '00씨 그날이야?'라고 묻는 동기, 하나의 회사 속에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인물들이 아주 조화롭게도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화를 내지 못했다. 화를 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리고 오늘날, 이걸 뒤엎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으며, 그 사람들은 '문화'라고 부르기도 추하고 더러운 '추태'를 꺼내기 어려운 기억 속에서 다시 펼쳐냈다. 연이어 등장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당하는 문화 속에서 한 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던 엄마의 과거에 대한 기억이 스물스물 기어올라오고 있다. 피해자가 피해자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고통이다. 피해자인 자신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인식하는 것도 크나큰 고통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의 사건들을 다시 정리하고, 바로잡는 것 또한 불가능하게 느껴진다. 고통과 불가능함 속에서 엄마는 더욱 더 생각을 지우고 자신의 딸은 그저 개인을 위한 삶을 살기를, 능력에 따른 삶을 살기를 바라며 현실에 대한 눈을 가린 채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른다. 바뀌지 않을 것 같으니까, 누구보다 더 능력기

를, 들이받으려 하지 않고 순응하면서 능력만으로 인정받기를, 힘들지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어디선가 이런 말을 들었다. 우리의 엄마들에게 자신들이 살아온 길이 한 사회 구조의 문제 속 피해자의 길이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자괴감과 허탈감,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다시 대화가 시작되었다. 뉴스를 보는 엄마는 말이 없다. “저런 사회 살아오느라고 고생했어, 엄마. 이제 우리가 바꿔볼게.” 예전처럼 엄마는 더 이상 바꿀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나쁜 놈들은 벌을 받아야 해. 저런 짓을 죄책감 없이 자연스럽게 했잖아. 추잡하다.” 이제 우리는 슬픔에 잠기지 않는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엄마가 고통받던 그 길을 지워내고 새로 쓰는 것이다. 슬픔이 아닌 분노로 가해자들을 향해 소리치는 것, 그리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드는 것이 엄마의 삶에 대한 앙갚음, 그리고 이를 넘어서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길이다.

윤여송(국문·15)

사설

## 강의매매 근절 위해 학생·학교 함께해야

새 학기면 강의매매로 학내 커뮤니티가 들쭉날쭉하다. 학적팀이 모니터링 한바에 따르면 매해 강의 매매 및 양도 게시물은 평균 20건이라고 하지만, 본지가 직접 조사한 결과 2018 1학기 전체 학내 수강신청이 이뤄졌던 2월8일 하루 동안 학내 커뮤니티에서 관련 게시물은 총 283개였다. 학적팀의 모니터링이 큰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강의매매 및 양도는 학생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문제로 보일 수도 있다. 이는 강의매매에 대한 본교의 분위기를 통해 알 수 있다. 학내 구성원 대부분은 강의매매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관련 사안을 비판하는 것이 학내 커뮤니티의 주류 의견이다. 대다수는 강의매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교육의 질이 돈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는 도의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일부가 강의매매를 하는 것이니 그들에게 인식 개선 등의 교육을 통해 강의매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학생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혹은 꼭 듣고 싶어 하는 수업은 한정적으로 열리는 반면 수요는 넘쳐난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이번 2018학년도 정시 신입생들에 대한 수강신청 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며 한층 부각된 측면이 있다. 1학년 수강신청 이후 수업 티오가 너무 적어 원하는 수업, 혹은 필수 과목을 듣지 못했다는 신입생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일부는 수강 신청이 이렇게 힘들니 차라리 거래를 통해 얻는 것이 쉽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충분하지 못한 티오의 수업으로 인해 수강신청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이것이 강의매매라는 비도덕적인 행위로 이어졌음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강의매매에 있어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도 강의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것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학적팀은 2014학년도부터 강의매매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현재까지 강의매매가 이뤄지는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를 모니터링 해오는데 중이이다. 그러나 적발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전화를 통해 강의 매매가 학칙 위반이라는 점을 학생에게 고지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학칙 59조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에 해당하는 점에 대한 처벌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다소 미약하다.

결국 강의매매는 학생, 학교 한 측의 노력으로만 근절시키기는 힘들어 보인다. 학생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동시에 학교 측에서 수강신청 시스템 정비 및 강의매매 처벌 확충 등 제도적인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강의매매는 학생의 재력에 따라 수업권이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학생의 양심과 학교의 제도적 정비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며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권이 보장되는 이화가 되길 바란다.

만평 우아현 만평기자 wah97@ewhain.net



금주의 책



**열한 계단** - 채사장 지음, 서울: 웨일북, 2016.  
이 책은 고전이 저자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고, 자신을 성장시켰는지 이야기해주는 서평집이자 회고록입니다. 저자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사회적 성공이나 부의 축적만이 아닌 내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성장을 위해서는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지혜 즉, 고전을 읽도록 권유합니다. 그리고 문학, 종교, 과학, 역사, 경제, 예술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고전을 소개하고 이 책들이 저자로 평범했던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려줍니다. 또한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무엇을 읽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독서를 통해 어지러운 세계에서 표류하지 않고 순항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이화인 여러분께 이 책을 권합니다. -중앙도서관-

서고 위치: 중앙도서관 [2층 금주의책 / 4층 일반자료실 001 책61일]

0131-0301 중도 대출순위				제공-중앙도서관
순위	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1	미생 : 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윤태호	위즈덤하우스	2012-2013
2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Rowling, J. K.	문학수첩	2003
3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 서울 격동의 50년과 나의 증언	손정목	한울	2003
4	서울대 한국어 [개정판]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문지미디어 : 투판즈	2012-
5	로마인 이야기	엄야칠생	한길사 : 한길사	1995-2007
6	도쿠가와 이에야스	산강장팔	술	2000-2001
7	효종실록	민족문화추진회	민족문화추진회	1930-1994
8	궁중무용무보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	1986-2009
9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Rowling, J. K.	문학수첩	2005
10	(고우영) 三國志	고우영	애니북스	2002